

제주문화 연구의 성과와 과제

허남춘*

< 차례 >

- I. 서
- II. 제주학 연구의 현황과 필요성
- III. 제주문화에서 핵심 주제가 되었던 연구들
- IV. 제주문화연구의 과제
- V. 결

국문요약

제주는 한국문화 속에서도 독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 동안 국가주의적 학문 풍토에서 제주적인 것은 주변적인 것으로 밀려났다. 그리고 민족문화의 역량을 논하는 자리에서도 제주도는 예외적인 부분으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민족문화는 지역학을 배제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학을 강조하는 학문 풍토에서 가능하다. 민족문화는 하위의 지역문화를 풍부하게 하고, 상위의 동아시아 문명권의 문화와 세계문화와 교류하는 가운데 그 존재 의의가 부각되게 마련이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제주문화를 주권으로 삼아야 한다. 제주의 독자적인 역사와 민속과 신화를 토대로 제주학을 구축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제주의 연구소, 문화단체나 연구단체에서 열린 세미나를 종합하여 몇 개의 주제로 계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성신화>를 비롯한 고대국가 형성기 전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탐구이다. 둘째, 고려 후기 몽고의 난을 전후한 시

* 탐라문화연구소장,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기 역사와 문화적 교류에 대한 탐구이다. 셋째, 조선조 유배인들의 문학, 그리고 조선후기의 수탈과 민란, 주민의 삶을 역사적 문헌과 호적증초를 통해 살펴본 성과이다. 넷째, 제주와 주변국과의 해양을 통한 문화적 교류에 대한 탐구이다. 다섯째, 4·3 사건의 역사적 규명작업과 문학적 형상화 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여섯째, 일제의 침탈과 재일제주인의 삶과 문화에 대한 탐구이다. 일곱째, 해녀(잠녀)를 비롯한 민요, 민속, 전통문화와 생산기술에 대한 연구이다. 여덟째, 제주 문화원형의 콘텐츠화 방안에 대한 탐구이다.

앞으로 제주가 관심을 두어야 할 연구과제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 1) 공동체 의식의 계승
- 2) 제주 맛과 멋의 계승
- 3)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균형
- 4) 제주문화의 정체성 찾기
- 5) 평화의 섬 이미지 구축
- 6) 지방학으로서의 제주학 정립

주제어 : 주변부, 지방문화, 신화, 민속, 탐라, 민요, 전통음식, 문화콘텐츠, 문화원형, 해양문화, 유배문학, 진상품, 4·3 사건, 해녀(잠녀), 미의식, 정체성, 평화의 섬, 지방학(제주학)

I. 서

제주문화의 특성은 무엇인가. 많은 논자들이 제주의 정체성에 대해 거론하였다. 어떤 이는 정신적 태도를 두고 ‘즈낭정신’이나 ‘수놓음’이라고도 했다. 어떤 이는 현상적인 것을 들어 규정하기도 했다. ‘삼다’와 ‘삼무’라고 하고, ‘돌, 바람, 여자’가 많고, ‘대문, 거지, 도둑’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삼다’는 원래 ‘수해, 한해, 풍해’의 자연재앙을 의미했었는데 언젠가 지금처럼 바뀌었다. ‘삼무’는 워낙 가난하게 살던 제주의 살림살

이를 염두에 두면 그리 자랑할 것이 못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제주가 섬이고 4면이 바다이기에 ‘해민정신’이라고 한 경우도 있다. 그것이 해적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도 가해져서 ‘진취적 정신’을 주장한 본의가 무색해졌다. 제주에만 유독 해녀가 있으니 ‘해녀’와 ‘강인한 여자’가 제주의 문화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논의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 땅의 어머니들이 모두 강인한 모성애를 지니고 있는데, 이를 유독 제주에만 적용시키기 무리라는 논의도 있었다. ‘돌하르방, 정낭, 돌담’이 한국문화 100대 상징에 들었기에 이 문화상징을 잘 살려내자는 논의도 한창이다.

최근에 주목할 논의가 있었다. 제주가 절해고도이고 유배의 섬이니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주변부의 문화라는 견해다. 제주의 실화에서도 이런 소외의식이 두드러지고, 양반문화가 없고 기록문화의 전통도 미약하고, 언어도 크게 다르니 ‘주변부성’이야말로 제주의 문화적 특성이라 할 만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상황이 조금 다를 뿐이지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이 주변부였고, 근대화 과정에서 중앙집권적·국가획일주의적인 전횡이 가해지면서 더욱 주변부로 밀려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역적인 이유를 들어 제주를 변방 혹은 주변부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정신적인 주변부 의식은 더욱 지양해야 할 일이다. 제주는 일찍부터 ‘중심부’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제주도의 신화가 천지창조(천지왕본풀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그것은 제주를 중심으로 인식하는 태도다. 우리가 제주문화를 논하려면 우선 주변부 의식을 버려야 한다. 제주가 중심이라는 사고에서 출발해야 제주문화의 전모를 논할 수 있고, 전통의 계승도 가능할 것이다. 모든 지방은 제각각 중심이고, 그런 사고에서 출발해야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고도 ‘중심성’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런 논지를 강화

하기 위해 제주 신화를 비중 있게 다룰 것이다. 제주는 신화로는 한국에서 중심이 될 것이고,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녀도 경제적 행위로서의 여성 잠수 작업이란 측면에서 보면 이도 세계적인 문화라 하겠고, 무속의례인 굿도 그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주요한 문화 지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말 문화, 제주어, 제주의 전통적 생산기술도 주목을 요한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제주의 역사적 특징과 문화적 특징을 두루 포섭하여 전반적 문화현상의 연구 성과를 조망할 것이고, 아울러 문화연구의 과제를 제시하여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제주문화 연구의 문제점과 목표를 염두에 두고 본고는 제주문화 연구의 현황과 필요성을 우선 논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제주에서 있었던 문화 담론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핵심 담론에 대해 언급하겠다. 연구 대상 범주가 넓기 때문에 1991년부터 최근까지 탐라문화연구소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학술대회의 아젠다를 중심으로 연구 성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앞으로 제주문화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주제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연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문화를 포괄하는 제주학에 대한 탐구는 이미 제주학회에서 있었다. <제주학의 과제와 방법> I·II라는 주제로 1997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학술대회가 개최되었고 이 성과가 『제주도연구』 14집과 15집에 정리된 바 있다. 여기에서 제주학 연구방법론, 제주의 정체성, 제주 연구의 성과와 과제, 제주학의 방법과 전망 등의 논의가 다양하게 도출되었고, 이 연구성과에 고무된 바 크다. 그러나 여전히 제주학의 필요성은 주장되지만 제주학의 결집은 미진한 상태라 하겠다.

지방학이란 용어 이외에 지역학이란 용어가 함께 쓰인다. 지역학이란 용어는 지역 연구와 매우 혼용되어 왔고 그 개념정리조차 모호하다.¹⁾ 그래서 여기서는 한국학과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방학이란 용어를 쓴다. 그리고 제주학을 염두에 두고 정리된 견해가 있는데, 지역학을 내세우는 것에는 사회·지역의 역사성과 총체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와 지역의 정체감에 대한 연구를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지역을 보다 나은 삶의 공간으로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했다.²⁾ 제주학은 제주의 역사성과 총체성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와 지역의 정체감에 대한 학제간 연구를 논한 점은 매우 적절하지만, 그것이 제주의 발전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문학쪽에서 제주학에 대한 정의를 내린 현길언은 “제주의 자연과 인간과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문제와 현상이 일반적인 연구와 달리 새로운 세계 현상을 도출하고 인식하는 독자적인 의미성을 얻기 위한 연구”³⁾라고 하면서 제주의 문제와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세계와 인간의 실체를 해명하고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 제주학 성립이 가능하다고 했다. 독자성과 보편성을 함께 바라보는 자세가 매우 온당하게 느껴진다. 개별학을 통해 일반학에 접근하고, 독자적 현상을 통해 일반 이론을 만나는 방식이어야 지방학과 한국학⁴⁾이 그 존재의의를 갖

1) 지역학이란 용어는 이미 지리학 분야와 관련되어 학제적으로 발전된 Regional Science의 번역어로, 지역 연구라는 Area Studies와 변별된다. 그러나 한국학은 Area Studies에 속한다고 하고, 지역학은 Regional Science일 수 있다는 식의 정리되지 않은 현실(전경수, 「지역연구로서의 제주학의 방법과 전망」, 『제주도연구』 15집, 제주학회, 1998, 7-9쪽)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다.

2) 유철인, 「지역연구와 제주학: 제주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도연구』 13집, 제주학회, 1996, 33-52쪽.

3) 현길언, 「제주학 연구 방법론」, 『제주도연구』 14집, 제주학회, 1997, 35-36쪽.

4) 조동일 교수는 한국학에 대해 “조상 전래의 능력과 지혜를 물려받고 직접 경험하

는다.

본고는 지역학이라는 용어 대신에 지방학이라는 용어를 쓰고, 지방학으로서의 제주학에 대해 논의를 펼칠 생각이다. 인문·사회·자연 학문 모두가 제주학에 포용될 것이지만, 여기서는 인문학적 사유를 토대로 하거나, 문화적 사유를 투과한 것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II. 제주학 연구의 현황과 필요성

제주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지 1년, 자치를 꿈꾸며 제주의 정체성을 자문하게 된다. 지난 몇 년간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외국 자본 유치와 영어 공용어화를 통한 세계화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전략일 뿐이지 제주인의 삶의 본질을 향상시킬 수는 없다. 한국의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 앞서 특별하게 자치를 실현시키는 노력도 경제 개방과 외자유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제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자치를 이룩하는 데에는 제주의 문화적 정체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제주가 지닌 문화적 잠재력을 문화 콘텐츠로 삼아야 세계화에도 성공할 수 있다.

제주는 한국문화 속에서도 독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 동안 국가주의적 학문 풍토에서 제주적인 것은 주변적인 것으로 밀려났다. 그리고 민족문화의 역량을 논하는 자리에서도 제주도는 예외적인 부분으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민족문화는 지방학을 배제하면서 이루어지는 것

는 한국의 자료와 사실을 철저히 검증해서 얻은 원리를 비교연구를 통해 널리 적용해서 한국학이 세계학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학문 일반가치를 지녀야 한다.”고 하면서 개별학을 발전시켜 얻은 성과를 일반화하고 세계화하는 과정에서 만나,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조동일, 『세계·지방화 시대의 한국학』 1, 계명대학교출판부, 2005, 40쪽)

이 아니라 지방학을 강조하는 학문 풍토에서 가능하다. 민족문화는 하위의 지역문화를 풍부하게 하고, 상위의 동아시아 문명권의 문화와 세계문화와 교류하는 가운데 그 존재 의의가 부각되게 마련이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제주문화를 주권으로 삼아야 한다. 제주의 독자적인 역사와 민속과 신화를 토대로 제주학을 구축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한국의 민속학과 신화학은 제주의 지역학 연구자들이 주도해 왔다. 한국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근대화를 위해 서양의 학문을 열심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할 때, 남들이 전통적인 문화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때, 현용준·현평효·김영돈·진성기와 같은 연구자들은 제주의 민속·언어·민요를 연구하며 전통적인 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었다. 이런 노력이 한국의 구비문학 연구에 자양분이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제주학의 지침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들이 남겨 준 자료와 애정을 토대로,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찾아나서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제주학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

제주도는 기록문화는 풍부하지 못한 편이지만, 구비문화는 풍부하다. 한국학 연구에 평생을 바치고 최근에는 지역학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조동일 교수는 제주도의 구비 신화가 세계적인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실로 제주도의 서사무가는 풍부한 신화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시적·고대적·중세적 문화의 원형을 담고 있는 보고다.

인류가 중석기시대를 맞으면서 신화를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본다. 지금으로부터 3만년 전이다. 이 오랜 신화의 전통이 제주에는 온전하게 남아 있다. 물론 중세를 지나며 문화적 충격에 따라 굴절되기는 하였지만 많은 신화가 풍부한 과거의 역사를 담고 전해온다. 역사 기록이 빈약함 때문에 주눅들 필요는 없다. 주변의 역사 기록조차 불과 몇천 년 전의 것에 불과하니까. 한반도의 기록은 불과 천 년 전의 것이니까. 지

구의 역사 40억 년, 인류의 역사 1700만 년, 현생인류의 시조 출현이 300만 년 전인 것에 비하면 기록의 역사는 아주 초라한 것이다. 오히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구비서사시의 전통이 더욱 위엄 있는 것이다. 제주는 이런 긴 역사의 전통이 무가 속에 담겨 있는 셈이다.

기록을 넘어서 구비적 가치를 찾고, 비기록적 표징들의 의미를 찾으면서 제주는 열패감을 극복할 수 있었다. 서구적 근대에 주눅들었던 민족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도 새로워졌다.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들이 학문적으로 경험했던 혼란은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⁵⁾

제3세계의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우리의 학문을 새롭게 점검해야 한다. 특히 전통문화라는 측면에서 그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민족전체의 전통문화를 두루 살펴야 한다는 명제 속에는, 지역학의 중요성이 내재해 있다. 민족학과 지역학은 상보적이다. 그간 지방학을 예외적인 관점이나 배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는데, 이를 시정해야 할 시기다. 민족학의 정체성은 지역학을 통해서 더욱 두터워질 수 있다.

특히 제주학에 대한 편견은 극심하였다. 우리나라 역사를 서술해 가는 과정에서, 몽고의 침탈과 삼별초군의 항쟁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제주가 처음 한국사에 등장한다. 제주의 입장에서 보면 밑도 끝도 없는 역사서술인 셈이다. 고대 탐라국의 역사적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소외는 심각한 편이다. 민족사의 온당한 전개를 위해서는 제주

5) 우리는 유럽 중심의 근대 문명이 개척해 나간 세계사적 보편성을 정착시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중세적 전통을 반성하지 못한 채, 서구적 근대를 이식하는 수동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 후 동유럽 중심의 사회주의적 세계관이 침투하여 재차 혼란을 겪었지만, 이를 우리의 근대 속에 적절히 용해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근대화 과정이 외래문명의 수용이라는 당연한 절차였고, 이제 우리는 자신의 전통과 서구문명을 통합하여 창조적인 미래를 구축하려는 전기를 마련하고 있고, 이때 우리의 전통에 대한 탐구는 긴요한 것이라는 반성적 성찰을 하게 되었다.

사를 끌어안아야 하듯이, 민족학을 위해서는 제주학을 관심있게 탐구해야 하고, 지금이 그 토대를 마련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금 그 인재를 키우지 않으면 사라지는 전통을 복원하여 계승할 기회를 잃게 되고, 제주학 연구 측면에서도 다른 지역 연구자에 종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한국학의 다양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방학으로서의 제주학’ 연구풍토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Ⅲ. 제주문화에서 핵심 주제가 되었던 연구들

제주문화에 대한 담론은 매우 다양하였고, 이는 다른 지역의 문화담론 연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논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90년대 이후 제주문화의 주도적인 연구소라 할 탐라문화연구소의 연구 세미나 주제를 예시로 삼아 본 논지의 목표에 다가갈 것이다. 세미나 주제는 다음과 같다.

- 1) 제주민속(91)
- 2) 제주의 해녀문화(92)
- 3) 동아시아 문화에 있어서 제주도의 위치(93)
- 4) 삼성신화의 종합적 고찰(94)
- 5) 제주문학의 정립(95)
- 6) 제주계록의 종합적 검토(96)
- 7) 제주의 사회와 문화(97)
- 8) 조선후기 제주사회와 주민생활(98)
- 9) 탐라와 몽골, 교류의 역사와 문화(98)
- 10) 제주의 전통문화와 생산기술(99)

- 11) 제주방언의 제문제(00)
- 12) 제주, 대마도, 구주를 잇는 제주문화(00)
- 13) 풍수지리와 장묘문화(01)
- 14) 지명과 지명연구(02)
- 15) 제주의 역사와 고문서(03)
- 16) 제주의 전통음식문화를 찾아서(04)
- 17) 제주문화와 문화콘텐츠 산업(04)
- 18) 재일제주인의 삶과 제주도(05)
- 19) 제주 향토문화의 디지털콘텐츠 방안(05)
- 20) 구어자료의 정보화 방안(05)
- 21) 제주음식의 문화콘텐츠화와 상품화(05)
- 22) 일제말기 제주도와 일본군 전쟁유적지(06)
- 23) 제주의 역사문화와 고문서(06)
- 24) 제주와 한국의 민요(06)
- 25) 동아시아 시가와 제주민요의 지평(06)

위의 세미나 주제와 제주 문화단체나 연구단체의 특기할 만한 세미나를 종합하여 몇 개의 주제로 계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성신화>를 비롯한 고대국가 형성기 전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탐구이다. 둘째, 고려 후기 몽고의 난을 전후한 시기 역사와 문화적 교류에 대한 탐구이다. 셋째, 조선조 유배인들의 문학, 그리고 조선후기의 수탈과 민란, 주민의 삶을 역사적 문헌과 호적중초를 통해 살펴본 성과이다. 넷째, 제주와 주변국과의 해양을 통한 문화적 교류에 대한 탐구이다. 다섯째, 4·3 사건의 역사적 규명작업과 문학적 형상화 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여섯째, 일제의 침탈과 재일제주인의 삶과 문화에 대한 탐구이다. 일곱째, 해녀(잠녀)를 비롯한 민요, 민속, 전통문화와 생산기술에 대한 연구이다. 여덟째, 제주 문화원형의 콘텐츠화 방안에 대한 탐구이다.

첫째, 다양한 고고학 자료의 발굴과 신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바탕으로 탐라국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고고학 자료로는 한국신석기문화의 기원을 밝힐 수 있는 고산리신석기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 청동기~철기유적에 해당하는 삼양동유적, 광지패총 등 탐라국의 형성을 밝힐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확보되었다. 또한 제주지석묘가 남·북방 절충형식인 독특한 제주도의 특징을 지닌 ‘제주도식 지석묘’로 나타났으며, 중국 현대의 철기문화가 제주에 유입된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었다. ‘섬 나라’라는 의미를 지니는 탐라국은 고구려·백제·신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당 및 일본 등 주변국가와 해양교류를 해 왔음을 들어, 국제관계 속의 탐라국 체제, 탐라국의 성주·왕자의 성격 등이 연구되었다.⁶⁾

제주의 고·양·부 3신인은 사냥을 하면서 지내다가, 3여신과 혼인하여 농경문화를 정착시킨 건국신화이다. 삼성신화는 남성신의 수렵문화와 여성신의 농경문화를 보여 준다. 두 문화의 결합은 큰 힘을 발휘하게 하였고, 고대국가의 건설에까지 미치게 된다. 특히 삼성신화의 기원이 되는 송당본풀이에서, 문곡성과 같은 주인공이 부모에게 버려진 후 강남천자국에 표착하여 난리를 평정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제주에 돌아온 내력은, 주인공의 해상능력을 보여주는 바이다. 그래서 조동일 교수는 ‘탐라국 건국서사시’는 “재래의 수렵민과 외래의 농경민이 결합되어 생산력을 발전시킨 토대 위에서 안으로 정치적인 통합을 이룩하고 밖으로 주권을 지키는 영웅이 해상활동을 통해 힘을 키워 작지만 당당한 나라를 세운 위업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그리고 탐라국의 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6) 김동전, 「제주 지방사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 지방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 2000, 230-254쪽. 이하 역사적인 측면의 연구사는 이 글을 인용하였다.

탐라국이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백제·신라·일본·중국 등과 외교관계를 가지고 왕래하면서 교역을 했다. 상대방에 비해 모자라지 않는 정치적 역량, 군사력, 항해능력 등을 두루 갖추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⁷⁾

이런 발견과 해석은 과거 탐라사에 대한 한국사의 왜곡되고 편협한 서술태도를 비판하고본토 위주의 역사관을 불식시키는 대단한 견해다. ‘탐라국’을 고구려·백제·신라·가야 등 고대국가와 대등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였고, 탐라사를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역사 쪽에서 못하는 일을 구비문학을 통해 문학 쪽에서 먼저 실마리를 풀었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몇몇 논문들이 고대국가의 형성시기인 1세기 즈음 탐라도 ‘國’으로서의 면모를 지니며 서서히 고대국가 체제로 성장하였음을 입증한 바 있다. 1928년 산지향 축조공사시 발견된 유물은 한식(漢式) 동경(銅鏡) 2점, 동경 장식, 오수전(五銖錢) 4매, 화천(貨泉) 11매, 대천(大泉) 2매, 화포(貨布) 1매 등이었다. 오수전은 BC 118년부터 주조되어 사용되었던 화폐이며 왕망 때 잠시 사용과 주조가 금지되었다가 후한 이후 다시 주조되어 오랜 기간 사용되었던 화폐이다. 이청규 교수는 오수전이 왕망전과 함께 출토되기 때문에 그 연대가 기원후 1세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⁸⁾ 그리고 이 오수전이 제주도 산지향, 전남 거문도, 마산 성산 패총, 황해도 운송리 등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이들 지역들은 중국과 상당한 왕래와 교역이 있었다고 평가된다.⁹⁾ 계속해서 전경수 교수는 제주도를 한반도 국가에 편입된 하위단위로 간주

7) 조동일, 「탐라국 건국서사시를 찾아서」, 『제주도연구』 19집, 제주학회, 2001, 102쪽.

8) 이청규, 『제주도 고고학연구』, 학연문화사, 1995, 194-195쪽.

9) 전경수, 「상고 탐라사회의 기본구조와 운동방향」, 『제주도연구』 4, 제주도연구회, 1987, 33쪽.

해 온 입장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를 비판하면서, 고대 제주도 역사기술을 한반도의 중심시각에서 벗어나야 하고, 상고 탐라를 동아시아 또는 동지나 해양문화권으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진영일 교수는 중국 화폐가 발견된 지역에서의 교역은 반드시 중국 상인들만이 주체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며, 탐라인들도 중한(中韓)을 다니며 교역하였던 점을 미루어 볼 때 한반도 다른 지역을 다니며 장사를 했고, 산지향은 국제 교역항의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그리고 그 무역은 기증무역의 성격이었고, 화폐는 수장이 사회를 통제하는 수장사회 단계에 해당한다고 했다.¹⁰⁾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 탐라국이 일찍부터 고대국가 체제로 발전하여 그 정치적 역량과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해양문화권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 고대국가의 형성과정은 신화와 본풀이에 반영되어 있다. 강남천자국을 평정하고 군사를 이끌고 제주로 돌아오는 문곡성의 내력은 바로 동아시아 해양문화권의 해상능력을 암시하는 것이라 하겠고, 삼여신이 농경과 목축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것 역시 고대문명의 전래와 탐라국의 형성과정을 상징하는 문맥이라 하겠다. 물론 농경과 같은 중요한 기술적 전환이 바로 탐라국과 같은 사회조직의 변화와 직결되지 않는다¹¹⁾고 하겠지만, 철기와 비단과 오곡으로 대표되는 고대문명의 문화적 충격은 컸다고 하겠다. 재래의 수렵민과 외래의 농경민이 갈등을 벌이다가 서서히 결합하여 생산력을 증대하고 국가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삼여신의

10) 진영일, 「고대탐라의 교역과 ‘國’ 형성고」, 『제주도사연구』 3, 제주도사연구회, 1994, 39쪽.

11) 진영일, 「고려기 참라의 星主와 三神人 탐색」, 『탐라문화』 26, 탐라문화연구소, 2005, 45쪽. 그는 대부분의 경우 사회기구의 변화가 선행되고 그 후에 기술, 생계, 그리고 기타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탐라국의 형성을 조동일, 이창규, 전경수 교수들보다 늦은 시기로 상정하고 있다.

도래는 가야국의 허 왕후 도래와 비견되는 고대국가의 형성과정이고, 새로운 문명의 수입과정을 보여 주는 문화적 교섭의 징후라 하겠다.

둘째, 삼별초 및 몽골과의 관계 등을 살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제주도와 몽골과의 관계는 고려 원종 8년(1267)부터 접촉이 시작되었다. 삼별초가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그 항쟁지를 옮기면서 대몽항쟁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대몽항쟁에 대한 연구는 자연스럽게 제주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그 뒤 고려 원종 14년(1273) 이 땅에서 삼별초가 고려·몽골 연합군에 의해 정벌되면서 제주도는 몽골의 직할지가 되어 공민왕 23년(1374) 목호가 토벌되기까지 약 100년간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다. 몽골이 토벌되기까지 약 100년간 직접 다루하치를 파견하여 마목장을 경영하였고, 고려에 반환된 이후에도 마목장이 계속되었기에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 더욱이 몽골 지배 후에 남송과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그들의 전초기지로 삼아 군대를 주둔시켰고, 도민들에게는 정벌에 필요한 전함을 건조하게 하였는데, 전쟁사의 측면과 고려후기 외교사적 측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아울러 원의 멸망 후에 원의 왕실 유민이 대거 제주도에 들어온 사정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몽골 지배 전후의 몽골문화 수용으로 기존의 탐라문화와 혼효되어 문화의 복합성을 가져 왔다. 특히 언어와 민속 등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라 하겠다.¹²⁾

삼별초의 제주입도와 제주도에서의 항전에 대해 역사와 설화는 시각

12) 고창석, 「고려후기 탐라와 원과의 관계」, 『탐라와 몽골』(탐라문화연구소 국제학술 심포지엄), 탐라문화연구소, 1998, 15-25쪽.

을 달리하고 있다. 역사는 삼별초와 김통정에 대해 부정적 서술을 하는데 반해, 설화에서는 그를 구원자로 인식하거나 신적 존재로까지 추앙하는 일면도 나타난다고 논하고 있다. 원과 관련해서는 원의 관부설치, 목마장 설치, 목호난, 칭기스칸 후예들의 제주 입도, 제주와 몽골 다리 강가의 유사성, 제주방언과 중세 몽골어에 대한 연구주제들이 주목받았다. 제주와 몽골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초보적 단계라 할 수 있다. 문헌적 연구단계를 넘어서 언어, 민속, 풍습 등 양국간의 비교문화사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셋째, 조선조 전반에 걸친 유배자의 문학과 조선후기 수탈구조에서 비롯되는 주민들의 궁핍한 삶과 민란에 대한 연구이다. 충암, 동계, 추사 등 유배인의 한문학과, <속사미인곡>(이진유), <별사미인곡>(김춘택), <만언사>(안조환) 등 유배인의 가사 작품, 그리고 제주에서 목사나 안무어사 등을 역임한 관료들의 기록물(김상헌의 <남사록>, 임제의 <남명소승>, 이원진의 <탐라지>, 이형상의 <남환박물>, 이원조의 <탐라록>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조선왕조의 과도한 진상품 요구와 함께 과도한 부역에 시달리는 제주의 현실을 조명하는 연구들이 이어졌다. 말, 굴, 전복, 미역으로 대표되는 제주의 진상품을 조달하기 위해 제주사람들이 감당해야 했던 고역, 특히 전복 진상을 위해 겨울에도 바다에서 물질을 해야 하는 해녀들의 힘겨운 삶을 담은 역사기록과 문학작품에 대한 탐구가 주목을 끈다. 그리고 19세기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민란의 한 요인으로서 제주지역의 사회경제구조를 수취체제의 운영과 폐단, 양태수공업의 전개와 몰락과정, 화전세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다룸으로써 조선후기 제주지역 경제사의 일단면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경향과 함

계 19세기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1813년의 양제해모변, 1862년 제주민란, 1898년의 제주민란, 1901년의 제주항쟁(이재수의 난)에 대한 일련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1901년의 제주항쟁 발발 100주년을 맞아, 민란사적 측면과 교난사적인 측면을 역사적 기록과 설화적 전승을 통해 고찰하는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제주 지역에 많이 남아 있는 호적중초와 고문서 자료를 활용하여 신분제도, 토지매매, 노비소유권, 그리고 재산상속 등 사회상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이루어졌다. 호적 자료의 미시적인 생활상을 통해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사회상을 살핀 연구는 그간의 거시적 역사를 보완하는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었다.

셋째, 제주와 주변국과의 해양을 통한 문화적 교류와 표류·표도에 대한 연구는 향후 매우 주목되는 연구과제의 하나이다. 그간 하멜의 제주 표도 등에 대한 재조명이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해양교류사적 측면에서 제주인들의 표류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최부의 <표해록>, 장한철의 <표해록>과 같은 기행문과 이방익의 <표해가>와 같은 기행기사 연구를 통해, 제주인의 이국표류와 그 송환과정, 새로운 세계의 체험을 통한 세계관의 변화, 주변 국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정립시키고 있다.

고대에서 조선후기까지 이어진 이러한 해양을 통한 교류는 현전 문화를 비교하는 연구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환동지나해를 둘러싼 고대문화의 교류, 신화의 의례를 통해 제주와 대마도, 유구, 큐슈 등 주변 해양 국가의 문화계통, 문화전파의 경로, 표류인의 왕래와 문화의 교류, 제주 방언과 주변언어와의 비교 등 비교문화적 연구가 진척된 바 있다.

제주의 남쪽 바다를 두고 동아시아 지중해라 부르기도 한다. 제주에서 대양을 바라보는 방향에서 왼쪽에 일본과 오끼나와가 있고, 오른쪽

에는 중국이 있고, 앞에는 대만이, 뒤에는 한반도가 놓여 있다. 이 대륙과 섬이 에워싸는 바다를 동아시아 지중해라 하는데, 제주는 이 구도의 중앙에 위치하는 섬이다. 21세기 대양 진출의 거점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염두에 두고 학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그 중심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등장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중심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의 수도 역할을 자처하여 정치경제적 갈등 조정뿐만 아니라 문화적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21세기 제주가 해양문화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기반은 충분하다. 그러므로 오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교류를 잘 정리·해석하여 새로운 교류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쿠로시오 해류를 통한 남방문화와의 교류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야 하고, 해양을 통한 표류와 내왕의 역사를 조명하되 안남과 오끼나와과의 교류를 특히 중시해서 살펴야 한다. 두 곳은 제주인의 중요한 표류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언어 경험을 살리기 위해 제주에 안남어와 오끼나와어 통역관을 두고 이 두 언어를 가르쳤다. 제주는 해양진출의 교두보이다.

다섯째, 제주 4·3항쟁에 대한 역사적 문학적 접근과 관련된 연구이다. 제주 4·3항쟁을 제주도 남로당원들이 주동하여 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해 일어난 폭동으로 이해하고 있는 견해(김정곤 등), 좌익세력이 해방공간에서 해게모니 장악을 위해 우익정부에 대한 반란이었다는 견해(존 메릴 등), 남로당과 제주 인민으로 항쟁의 주체를 설정하고 이들이 반제국주의 투쟁과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인민무장투쟁으로 4·3을 바라보는 견해(김봉현·김민주)가 있었고, 최근에는 항쟁의 주체는 제주민중이며, 이들이 생존을 위해 제국주의에 저항하였고, 나아

가 통일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논하고 있다.

4·3은 3만~5만의 대량학살을 경험한 제주인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제노사이드’라는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제주4.3 50주년을 기점으로 4.3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4·3 희생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계기로, 이념적 논란을 뛰어넘어 상생과 평화운동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4·3을 현대 역사의 장에 꺼내놓은 것은 문학이었다. 70년대 후반 독재가 서슬 푸른 시절 현기영의 <순이 삼촌>이 그 시초라 하겠다. 그 후 제주문학에서 가장 주목되었던 주제는 ‘4·3문학’이다. 4·3 발발 직후부터 2003년까지 발표된 4·3 소설의 목록에 따르면 24명의 작가가 103편의 소설을 발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¹³⁾ 4·3을 체험한 현기영·현길언·오성찬의 작품이 51편으로 절반에 해당한다. 그리고 다양한 장르에서 4·3문학이 창출되고, 일본에 거주하는 김석범의 <화산도>, 제주 밖에서 4·3문학의 불씨를 당긴 이산하의 <한라산>, 북한문학에 재현된 4·3 - 강승한의 서사시 <한나산>과 함세덕의 희곡 <산사람들> 등 주목할 작품이 창출되었다. 이에 병행하여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는데, 4·3의 원인과 경과,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상처가 지속되고 있는 양상과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식과 우리 시대의 분단 비극 양상을 짚어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4·3문학이 통일열망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연구 성과도 나타난다. 아울러 2008년 60주년을 맞이하면서 4·3을 상생과 해원의 문화예술운동으로 승화시키려는 모색도 나타나고 있다.

13) 김동윤, 「4·3문학의 전개양상과 그 의미」, 『기억 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2004, 210-252쪽.

여섯째, 재일제주인 문제에 대한 연구이다. 제주도의 문화나 생활양식을 간직하고 이민한 재일 제주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연구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재일 제주인의 이주와 정착 과정을 통해서 재일 제주인의 역사(한국사, 지방사, 일본사 등)와 문화(생활문화 중심, 민속, 제주방언 등)가 어떻게 형성되고 세대교체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가를 주요 관심사로 다루었다.

재일제주인은 현재 일본에 약 20만 정도 살고 있으며 오사카, 동경 등지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제주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생활하고 있다. 재일 제주인 1세의 자연적인 감소(사망 등)와 더불어 2세, 3세, 4세로 내려오면서 일본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적인 요소와 일본적인 변이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대부분의 연구는 일본 생활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세시풍속이나 통과 의례 등 민속과 일본의 민속과 습합되는 양상을 고찰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일 제주인 연구는 역사와 문화의 전승 정도, 전이 과정, 전이 결과에 관심을 두고 있다.

재일 제주인의 역사를 바라보기 위해서 재일 제주인 작가와 작품을 대상으로 삼은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즉 제주출신 및 본적지(원적지)를 제주에 둔 재일 제주인의 문학 활동을 연구 범위로 삼고 있다. 2004년 현재 제주출신 문인은 17명으로, 김석범, 김시중, 정인, 양석일, 고찬유, 원수일, 김종명, 현월, 김길호, 김태생, 종추월, 고정자, 허옥녀, 김계자, 김창생, 김마스미, 이양지 등이다.

연구 대상 작품에는 <화산도>, <感傷周波>, <피와 뼈>, <종추월 시집>, <이카이노 타령>, <이카이노 여자, 노래, 사랑>, <할아버지 담배통>, <불씨>, <항로>, <봉선화>, <뿌리없는 풀>, <이카이노 이야기>, <울나이트 블루스>, <나의 이카이노>, <이카이노발 코리안 가루타>,

<소나기>, <환상의 대국수>, <오인의 반란>, <메꽃도>, <무대배우의 고독>, <웃빠이>, <그들의 집>, <나의 일본지도>, <빨간꽃-어느 여자의 일생>, <유희>, <이쿠노 아리랑> 등 100여 작품이 있다.¹⁴⁾

이들 문학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재일제주인’ 혹은 ‘재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찾기라고 하겠다. 일본 속에서 살면서 국적을 숨기며 살아가는 재일 한국인 2,3세들의 삶에 내재한 비극성, 그리고 결국 자신의 국적을 드러내면서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이에 굴하지 않고 자아를 찾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일제 침탈의 상처는 아직 치유되지 않은 것임을 확인하게 한다. 그리고 재일한국인들이 민단과 총련으로 갈려 빛어내는 갈등과 반목은 한반도의 비극성을 일본땅에 그대로 옮겨놓은 형상이라 하겠다. 결국 이들 문학에 대한 연구에서는 분단 극복의 과제, 재일동포의 정체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문학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보 단계이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분야이다.

일곱째, 민속문화에 대한 연구이다. 민속의 영역이 넓으니 여기서는 민속공예, 생산기술, 세시풍속, 통과례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고, 제주의 민속문화 속에서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교해 볼 때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무속과 민요, 그리고 음식문화에 대해 자세하게 그 연구사를 살피고자 한다.

제주도는 풍부한 민속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어서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민속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무속은 꾸준한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구비전승물인 신화와 더불어 제주문화의 가장 핵심적 요소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제주 무속에 대한 관심과 연구로 인해 그동안

14) 현대문학 분야와 재일제주인 문학가에 대한 사항은 김동운 교수의 『4·3의 진실과 문학』(각, 2003) 등의 연구성과 요약을 참조하였다.

성과물이 적잖이 축적되었고,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연구주제들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 무속에 대한 연구는 초창기에 신화를 중심으로 하는 본풀이 연구, 즉 구비문학적 관심에서 출발했다. 그러다가 본풀이와 굿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굿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무속신앙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굿의 종류, 제차, 성격과 역할, 심방(무당), 단골(신앙민) 등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다. 그밖에도 생업이나 가정생활과 관련된 무속신앙 등도 연구대상이었다. 하지만 초창기에는 일단 자료의 수집과 일차적인 파악에 중심을 둘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연구는 다소 이루어지기 힘들었고 무구나 연물(무악기), 춤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까지 연구를 진척시킬 여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연구를 수행했던 이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현재까지 연구의 맥이 흐를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보다 세밀한 연구나 다양한 접근은 현재의 연구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의 과제이기도 하다. 한편 인류학 등 인접학문 분야에서도 제주도 무속에 대해서 틈틈이 관심을 보여 관련 논문들이 발표되기도 했다. 우선 제주도 무속에 대해서 학문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일본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였다. 물론 제주도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부분적으로 제주도에 대한 관심도 수반되었다. 그러다가 해방 후 국내 학자들에 의해 한국 전체의 무속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제주도 무속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현용준과 진성기는 제주도 무속 연구의 중심에 있는 학자들로 소위 제주도 무속에 대한 본격적인 첫 연구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구비전승 되던 본풀이를 수집, 채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제주도의 무속연구는 이들에 의해 한층 진일보하게 된다. 현용준의 『제주도무속

자료사전』과 진성기의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등이 대표적이다.¹⁵⁾

앞으로 제주도 무속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지속되는 무속신앙의 모습에 대한 섬세한 고찰이 필요하다. 마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당굿 등에 대한 기록과 분석, 제주도 ‘큰굿’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실질적 분석, 가정신앙과 조상굿 등에 대한 조사, 심방의 생애와 학습과정 등등 연구 주제는 실로 아직도 풍부하다. 또한 그동안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분야(무구, 연물, 춤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들도 필요하며, 생업활동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는 무속신앙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역시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동시에 사진이나 영상자료 등 관련 기록물의 축적도 필요한 일이다.

제주도는 육지와는 다른 독특한 민요권으로 알려져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자료 수집과 정리, 연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민요 연구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식민지정착을 강화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를 중심으로 하여 일제에 의해 자료조사와 수집이 시작되었다. 해방 후 1950년대부터 민요수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민요집이 간행되었다. 특히 제주 출신 학자들이 제주민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접 발로 뛰어 민요를 수집하고 자료집과 연구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제주민요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홍정표의 『제주도민요해설』, 진성기의 『제주민요집』· 『남국의 민요』등이 이 시기에 발간되었다.

1960-70년대에 들어오면서 단순한 자료집의 발간에서 벗어나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특히, 김영돈은 꾸준한 자료수집과 연구를 진행하여 다수의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있는데, 『제주도민요연구 上』을 통해 본격적인 제주민요 연구를 촉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저

15) 무속 분야는 강소전 선생의 연구 요약을 참조하였다.

서에는 민요 각편마다 표준화 한 역가를 수록하여 제주어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구비문학대계』 등 민요 자료집과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의 학술조사 자료집 등 다수의 민요자료집이 발간되었다. 김영돈은 제주민요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활발한 저술활동을 통해 제주민요 연구의 초석을 쌓았다. 한편, 제주대학교 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이 개설되면서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한 젊은 학자들이 민요연구에 참여하면서 민속학적·문학적 민요연구의 저변이 확대되었다.

1980년대는 민요연구의 성장기를 맞이한 시기라 할 수 있다. 1987년 김영돈을 중심으로 <민요학회>를 창립하고, 현지조사와 학술세미나 개최를 통해 협력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으며, 현장론적 관점의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1990년대는 문학적·민속학적·음악적 측면에서 제주민요 연구가 다양하게 전개되었는데, 육지부와 제주학자들 사이의 민요학 관련 학술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인접분야 연구자들이 학제간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층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제주민요 연구는 좌혜경 『제주전승동요』, 윤치부의 『제주전래동요사전』, 조영배의 『제주도노동요연구』 등이 저술로 발간되었다.¹⁶⁾

제주민요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제주민요에 대한 문학적 연구는 좌혜경·이성훈·양영자·변성구 등에 의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지속적으로 그 맥이 이어져 오고 있다. 그리고 문학적 연구에서 현장론적·배경론적 방법을 활용한 민속적 연구로까지 나아감으로써 민요연구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좌혜경은 <한국민요의 사설 연구>란 박사논문 이후 꾸준히 민요 연구를 해왔고, 특히

16) 민요 분야는 양영자 선생의 연구 요약을 참조하였다.

해녀(잠녀) 노래 연구를 하면서 일본에 간 제일제주인 해녀의 삶까지 두루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성훈은 제주에서 육지로 출가(出嫁) 물질 나간 여성들의 노래를 꾸준히 연구하면서, 제주 해녀 노래와 육지의 변용된 노래에 대해 조사·연구를 시작하여 신선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¹⁷⁾ 변성구는 제주민요의 분류문제를 검토하면서, 한국민요의 분류체계 속에서 제주민요를 기능별로 새롭게 분류하고, 그에 따른 존재양상을 살피고 있다. 그리고 노동요가 풍성한 제주민요 사설의 기능적 성격과 독특한 가창방식으로 유기와 변별되는 구성 양상을 규명해냈고, 기능과 연행양상, 사설의 전반적 성격과 정서, 무속의례·민간놀이·노동의 현장에서 춤과 함께 연행되는 다양한 민요의 연행양상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¹⁸⁾ 양영자는 제주민요의 서회·역사적 배경을 탐색한 후 민요의 기능·가창방식·담당층 등을 고찰하고 민요의 존재양상과 현장성까지 살피고 있다. 민요 사설 자체의 해석에만 머물지 않고 민요를 산출한 역동적 현장을 살펴 봄으로써 제주라는 공간과 사회, 제주사람들의 인식체계, 정서 등을 이해하려 하였다. 그 다음으로 제주사회의 여러 문화적 요소와 연관지어 제주사람들의 생활인식이 민요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폈다.¹⁹⁾ 제주민요는 공동체의식과 공생주의, 자주의식과 평등의식, 도전의식과 현실인식 등이 반영된 구술문화임을 증명해 보였고, 자연친화 정서, 화해와 상생의 정서, 신명과 놀이의 정서 등 제주사람의 정서적 특질을 두루 밝힌 바 있다.

민요의 악보화 작업과 방송사의 음반작업까지 이루어지면서 민요는 더욱 총체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제주 KC TV에서

17) 이성훈, 『해녀의 삶과 그 노래』민속원, 2005. 그는 최근 연구성과를 박사논문으로 완성하였다. (『해녀 노랫소리는 소리』, 숭실대 박사학위논문, 2007)

18) 변성구, 『제주민요의 현장론적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7.

19) 양영자, 『제주민요의 배경론적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7.

영상화 작업까지 이루어져 전통문화의 보존과 교육적 자료의 활용가치를 높였다. 최근에는 무형문화재 발굴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민요 자료집이나 음반을 내는 사례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민요의 기능은 이미 소멸하였고, 실제 노동의 현장을 되살릴 수 있는 소리꾼들은 빠르게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 현재 제주민요를 전승하는 주체들은 노동과 삶의 현장과는 동떨어진 국악단 중심의 전문소리패들로 주로 테이프나 음반을 통해서 노래를 전수받고 있다. 이들에 의해 노동요는 급격하게 무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요도 가창유회요화 해 버리는가 하면 제주민요의 정체성을 상실한 사례도 적지 않다. 얼마 남지 않은 제주민요의 가창자를 찾아내어 자료를 확충하는 것 못지않게, 이미 확보한 자료를 정리하고 제대로 전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제까지 확보하고 축적된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주민요 자료를 조직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학자들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용어의 문제, 사설표기의 불통 일성 문제, 자료의 산재, 제주어의 현대어 주석문제 등을 해결하고 이를 전산화하는 작업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음식 연구는 지금까지 영양학의 관심사였다. 재료는 무엇이고, 조리 방식은 어떻게 되고, 칼로리는 얼마이고, 몸에 좋은 성분은 무엇인가 하는 영양학적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다. 탐라문화연구소에서 관심을 갖고 개최한 음식 관련 세미나에서는 음식을 문화의 영역 속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무엇을 먹는가'는 인간생존의 풍토적 조건 이상의 문화적 조건을 함유하고 있고, '어떻게 먹는가'는 더욱 큰 문화적 영역으로 확대되는 썸이다. 날것으로 먹느냐 익혀서 먹느냐의 문제, 어떤 그릇에 담아 먹느냐, 젓가락으로 먹느냐 포크로 먹느냐 손으로 먹느냐의 문제, 조리시간이 긴가 아니면 간단히 조리해 먹는가의 문제, 누구와 함께 먹느냐

냐, 반상이 함께 먹느냐, 가족끼리만 먹느냐 혹은 마을 종족과 함께 먹느냐의 문제는 가히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적 조건이라 할 수 있고, 역사의 비기록적 표징이라 할 수 있다.

제주에는 기록문화가 빈약한 대신 구비전승이 풍부하고, 많은 민속자료들이 남아 있다. 중세 중앙의 영향이 미치지 못했던 탓도 있고 제주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지켜온 나름의 정체성도 작용을 하였다. 중세적 합리주의의 세례를 받지 못한 탓에 세련된 문화가 존재하지 않지만 한편에서는 고대적 문화의 요소들이 고스란히 보존될 수 있었다. 신화와 굿, 해녀문화 등이 그렇고, 특히 음식에 있어서도 독특한 문화를 전승하고 있다. 이 비기록적 표징들을 모으고 민속을 집대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탐라문화연구소 연구자들은 음식의 민족지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사라져가는 민족지를 보존함으로써, 근대 서구문명으로 획일화하는 쓸림 현상을 극복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표방하면서 근대문명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할 대안들을 발견하려는 목표를 지닌다. 그래서 최근 탐라문화연구소에서 수행된 음식문화 연구는 한국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민족지를 바탕으로 문명 극복의 대안도 제시하는 방향을 견지하고 있다.

제주의 음식 역시 자연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제주는 화산회토로 되어 있는 탓에 벼농사를 할 수 없었고, 밭농사 위주의 새업이 주를 이루고, 여기에 바다 물질작업이 보조적인 생계수단이 되었다. 그래서 조와 보리와 같은 잡곡과 해산물을 주식으로 삼게 되었다. 역사적인 상황도 제주 음식과 연관되는데, 굴과 전복을 진상품으로 바치는 노고를 감내해야 했기 때문에 해녀의 물질작업이 지속되었다.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출륙금지령이 배를 만들어 어업행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도 제주 음식을 제한적으로 만들었다. 제주의 무속에서 돼지고

기를 제물로 바치는 신앙과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신앙의 갈등 속에서도 제주의 음식문화는 결정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적·역사적·종교적 요인들이 제주의 음식문화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규명의 대상으로 삼아 많은 성과를 축적하게 되었다.

음식을 연구하는 데 있어 문헌자료가 별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구술자료를 집적하고 이를 통해 제주 전통음식의 전모를 파악하는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구술 속에 다양하고 풍부한 제주인의 삶이 배어 있음을 느끼게 되면서, 구술자료야말로 민족지 구축의 근간이어야 함을 화두로 삼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²⁰⁾

여덟째, 제주 문화콘텐츠화 방안에 대한 연구다. 최근 들어 새로운 화두가 된 연구분야이다. 문화가 문화축제로 발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용성과 문화가 산업화하여 IT와 만나 영상물 혹은 2D, 3D로 확장되는 가치를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제주에서도 ‘삼별초’를 문화콘텐츠화하는 작업이 있었고, 제주의 ‘원천강본풀이’를 이성강 감독이 ‘오늘이’라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요즘 탐라문화연구소에서는 제주 전통 음식문화를 콘텐츠로 하여 IT 업체와 애니메이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 전통음식에 제주의 신화를 결합하여 스토리텔링을 하고, 이를 토대로 시나리오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문화콘텐츠화에는 그 문화원형을 그르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신화를 애니메이션의 원천자료로 삼고 있는데, 신화에 담긴 인간의 고뇌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분투를 생략한 채 단지 흥미 위주로 간다면 애니메이션은 공허한 이야기에 불과하게 된다. 그리고 신화

20) 이에 대한 연구성과가 최근 『제주의 음식문화』(허남춘·주영하·오영주 공저, 국립민속박물관, 2007)란 책으로 출간되었다.

가 상상을 이미지화한다는 측면에서, 상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이미지화하는 애니메이션의 품안에 안기게 되고, 신화가 문화산업과 시장적 제휴를 하면서 과연 예술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결국 신화는 산업적 가치를 위해 이용되고, 오락실의 오락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화산업에 문화가(그리고 연구소가) 끼어드는 것은 문화의 가치를 함양시키는 데까지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으로 문화의 산업화에 대해 고민하고, 적절한 제휴방식을 탐구해야 할 것이다.

IV. 제주문화연구의 과제

1. 공동체의식의 계승

한라산과 오름과 마을이 어우러진 정경은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는 것이 제격이다. 한 폭 한 폭 모자이크화 같은 그림이 펼쳐진다. 자연과 인공이 어우러진 그림이니, 설문대할망과 제주인이 오랜 세월 동안 함께 만든 공동성·적층성의 예술이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자이크화의 실체는 돌담에 의해 구획된 밭과 밭, 밭과 길, 숲과 오름의 총체이다. 경계선은 갈라놓는 구실만 하지 않는다. 나와 남을 다르게 하면서도 아름다운 하나이게 한다.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다. 제주 문화가 그렇다. 나와 남을 엄밀히 구획하여 나의 일을 남에게 미루거나 의존하지 않는 철저한 독립성을 지니지만, 남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는 화합성도 지닌다. 집을 안거리와 밖거리로 구획하고 부모와 자식간에 따로 살지만, 큰 일이 닥치면 하나가 되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따로 또 같이’의 미래적 대안 주거문화다. 그러나 집안에서부터 이웃의 어려운 일이 있으

면 함께 풀어가는 수놓음 정신이 제주정신의 대표라 할 만하다. 결국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제주인은 근대화 이후에도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보아도 좋다. 아직도 이웃의 관혼상제에 부지런히 관여하면서 공동체의식을 잘 간직해 나간다.

이 켤당 의식(제주에서 가장 강한 정당이라고도 한다)이 이따금 불화를 낳기도 한다. 자기 집안, 자기 마을, 자기 출신교를 지나치게 감싸다 보니 다른 집안, 남의 마을, 타교 출신을 배제하게 되는 폐단도 낳는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어느 깡패영화의 부정적 집단의를 닮기도 한다. 진실과 거짓, 의와 불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아 사회를 정체시키거나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자기 견해는 없고 대의를 따르는 복합적 명분론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제주에만 있는 현상이던가. 자연·혈연·학연에 의해 한국사회가 움직여왔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인간사회에는 엄연하게 존재하는 의식의 일단이다. 그런 사고가 근대화 이전의 봉건적·중세적 사고라고 비판되는 수도 있다. 그러나 근대적인 것은 무조건 좋고 중세적인 것은 전근대적이라고 비판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의식은 근대 속에서도 발전적으로 계승되어야 할 덕목이다. 제주는 ‘오래된 미래’를 간직하고 있다.

2. 전통적 맛과 멋의 계승

오래된 과거의 것이지만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제주에 또 있다. 그것은 제주의 음식문화이다. 필자는 3년 전 <제주일보>에 ‘제주 맛’을 1년 여 연재한 적이 있다. 그 첫 번째가 건입동의 ‘돌하루방식당’이었고, 그때 나는 이렇게 썼다. “각계기 국이 유명한 집이다. 각계기국 속에 사철 살결이 다른 배추를 넣어 싱싱한 맛을 우려낸다. 연한 놈은 약하게, 억센 놈은 세계 익혀 낸다. 순리를 터득한 주인의 비결이다. 작

은 아이에겐 작은 옷을, 큰 아이에겐 큰 옷을 입히는 아주 쉬운 도리가 맛으로 피어난다. 여름에는 다소 짠 듯하게, 겨울에는 싱겁게 끓여낸다고 한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우리 몸이 소금기를 요구하는 이치를 이 노인장은 알고 있다. 계절의 변화를 담아낸 이 집의 각재기 국 속에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낙엽이 진다”고 적었다. 자연에서 얻는 싱싱한 재료를 계절에 맞게 조리하는 제주의 음식에서 ‘음식의 도리’를 찾을 수 있다.

제주에는 잡곡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국 문화가 발달되었고, 태풍 등으로 구휼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아 구황식품이 발달하고, 생존을 위해 다양한 음식을 짝짓기해 먹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콩죽에 양을 불리기 위해 말린 고구마를 넣고, 해초를 넣는 등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창조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음식문화가 있었다. 무작적의 짝짓기는 아니고 나름의 음식궁합을 감안한 과학적 사고가 배태되었다. 우리 음식을 다양화하는 데 있어 제주 음식은 소중하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에는 단품식품이 많이 발달하여 있다. 평양의 냉면과 같이 한 그릇이면 식사를 해결하는 방식이 제주 음식의 근간이다. 자리물회가 이에 비견될 것이다. 현대 한국인의 음식은 한정식문화에 침륜되고, 많은 가짓수의 풍부한 음식을 즐기고, 남는 것은 버리는 문화다. 제주의 단품식품은 버려지는 음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음식문화이다. 쓰레기 과다와 환경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음식문화를 가선하는 대안이 담겨 있다.

제주에는 비가공 천연식품이 주류를 이룬다. 한국 중류사회는 이미 70% 이상의 가공식품을 먹고 지내며, 아토피와 같은 현대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데, 제주가 장수지역으로 손꼽히는 것도 가공식품을 지양하고

천연식품 위주의 식단을 짜기 때문일 것이다. 원천재료를 날로 먹거나 간단히 조리하는 제주의 음식은 친환경 식단의 표본이 될 것이다. 제주의 잡곡과 해조류로 만들어진 죽과 떡은 웰빙식품으로 각광받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천연식품으로 이루어진 죽은 노인과 환자의 보양식으로 계속 개발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한 때 제주음식은 맛깔스럽게 꾸미는 문화가 없고, 양념도 별로 없고, 가짓수도 적고, 조리시간이 짧아 우러난 맛을 내지도 못하는 형편없는 음식이라 폄하되기도 하였다. 가짓수가 많고 꾸밈이 많고 양념이 많고 조리시간이 긴 현대 한국의 음식은, 남기게 되어 버져지는 것도 많고 지나치게 많은 조미료를 써서 본래 재료의 순수한 맛을 잃고 결국 긴 조리시간을 참지 못하는 주부들에 의해 외면당하기 시작했다. 제주의 음식은 가짓수가 적어 버려지는 것이 적으니 환경친화적이지요, 양념이 적게 들어가 자연식품 그대로의 맛을 낼 수 있고, 조리시간이 짧아 주부들로부터 외면당할 우려가 적으니 미래지향적 음식이다. 제주의 음식에서 오래된 미래를 발견하고, 이를 한국음식의 대안이므로 삼아,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에 물들어가는 우리의 음식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우러난 맛’을 즐기느라 우리는 정도 이상의 것을 과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물 맛을 위해 열대여섯 가지 재료를 버리는 과소비 문화를 지양하고, 제주적인 단순 소박한 음식문화를 회복하여야 인류의 미래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의 멋도 제주 맛을 찾는 연장선상에서 찾아질 것이다. 옛 것을 오래도록 간직하는 전통, 생태적 친환경적 사고, 꾸밈이 없는 소박미, 억지로 꾸미고 치장하지 않는 단순미, 과소비를 지양하는 의식 등을 떠올릴 수 있으며 여기에서 미래지향적인 문화 전망을 갖게 될 것이다.

3.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균형

제주는 아직도 고리타분한 문화의 찌꺼기가 남아 있다고 한다. 이사를 해도 꼭 정해진 철에만 한다. 이 시기를 신구간이라 한다. 신들이 하늘나라 옥황상제께 조회를 받으러 가는 입춘 전 일주일의 손 없는 날이라 하여 모든 이사를 이때에 끝마친다. 이사 비용이 평소의 두세 배가 되는 데도 이 관습을 고수하니, 편한 때에 해치우는 육지 사람의 눈에는 전근대적으로 비춰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다면 이 또한 긍정적인 문화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 아닐까.

제주에서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더라도 보상 비용이 육지에 비해 두 배 정도가 든다.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에 일임하면 그만일 일일 수도 있건만, 별도의 보상이 필요하다. 차를 고치고 가벼운 상처를 치료해야 하듯이 정신적 상처도 고치고 달래야 한다. 그것을 '넋들임'이라고 한다. 사고의 충격으로 넋이 나갔으니, 넋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넋들임 비용을 요구하고, 가해자도 이를 당연히 여긴다. 제주에서는 아직도 물질적인 치료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치료까지 중시하고 있으니, 매사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만하다. 세상이 물질만능으로 흘러가더라도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이 전통적 문화를 제대로 연구하여 정신적 황폐함으로 내몰린 근대를 치유해야 할 것이다.

4. 제주문화의 정체성 찾기

제주문화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논의는 다양한 층위에서 있었다. 서론에서 잠시 밝혔듯이 다양한 논의가 무성하였고 제주인의 정신적

원천을 다양하게 해석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서로 심한 논쟁을 겪기도 하였고, 제주라는 공간에 작동하는 정체성 혹은 특성이 정치적 합리화의 수단에 이용되기도 하고, 오히려 제주인을 이념적 틀에 옹아매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보이지 않는 실체를 억지로 현현화하려는 작위적 경박성이 난무하였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현상은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과정에서도 노정된 바 있다. 한국문화를 통해 민족미학을 규명하려는 논의는 과거와 현재, 전통과 근대를 관통하는 민족의 보편적 정신이 무엇인가를 찾는 작업이었다. 그래서 ‘멋’을 한국문화나 예술의 특성과 직결된 미적 개념으로 규정하였고(이희승, 조지훈), 이후 다양한 민족미학의 발견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멋’이란 보편적 일반명사를 끌어다 민족의 것이라 하기에는 억지스럽다고 비판받은 바 있다. 그것은 단지 아름다움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 하겠다. 그리고 민족미학이 단 하나의 특성으로 한정될 수도 없다는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그래서 “단일성의 한국적 아름다움을 찾아 심미적 정체성을 발견하려는 것은 꿈꾸는 자의 욕망이자 권리이다. 일원론적 욕망과 다원론적 현실 사이의 모순 속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 인간의 조건이듯이, 결국 민족미학론의 운명 또한 그런 것이 아닌가”²¹⁾란 반성은 적절한 문제제기라 하겠다.

제주문화에 대한 정체성 규명도 ‘일원론적 욕망과 다원론적 현실’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각도에서 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과거에서 현재를 관통하는 보편적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벽이 많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근대’란 시대정신과 이 시기에 형성된 ‘민족’이란 개념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근대란 서구가 발명해 낸 문명의 의미를 지니는데, 근대 이전(전근대)과 근대는 그 지향 가

21) 성기옥, 『국문학과 민족미학』, 『국문학과 문화』, 월인, 2001, 299쪽.

치가 엄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양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을 찾는 작업은 매우 어렵다. 그리고 민족이란 개념도 서구적 근대 이후에 설정된 것으로서 어느 범주까지를 민족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점은 매우 어렵다. 이와 연관하여 제주라는 지역을 토대로 한 제주인이라는 개념을, 문명소통의 일반적 현상과 단절시킨 채 규정하기란 실로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제주의 구체적 문화현상을 다각도로 고찰하여, 동아시아 혹은 한국의 문화와 변별되는 독자적 문화가 작동하는 원리를 찾아내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국에도 굿이 있고, 제주에도 굿이 있다. 둘은 서로 문화적 교류를 통해 같은 점도 있고 지리적 격절성으로 인해 다른 점도 있다. 제주의 특성을 찾기 위해서는 유사성과 이질성을 변별해야 한다. 제주의 굿이 육지와 다른 점은 우선 유교와 불교에 의해 크게 훼손되지 않은 채 근대에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에서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왜 제주에서는 국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잠식당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하는 원동력을 발견해야 한다. 즉 무속을 정점으로 그 공동체성이 오래도록 유지된 이유를 찾아야 제주문화가 육지와 다른 점이 명확해진다. 공동체를 끌어들이는 제주 굿의 원초적 힘이 무엇인가를 밝히면 제주의 문화적 독자성도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문화 작동원리를 찾는 작업이 최근 시도된 바 있다. 제주도 입춘굿놀이를 대상으로 삼아, 그곳에 ‘내고-달고-맺고-푸는’ 원리를 발견하고 여기에 ‘맞이-풀이-놀이-풀이’의 미학이 작동하고 있으며, 같듯이 해소되는 한풀이, 흥풀이, 신명풀이로 이어지는 정서적 원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²²⁾ 육지와 달리 본풀이(서사무가)가 많이 전하는 이유와, 굿과 신화에 내포된 우주·자연·인간·사회의 조화와 생명원리를 결부시키는 굿의 원리, 북방문화와 남방문화를 조합하면서 독자적인 문화

22) 한진오, 「제주도 입춘굿의 연행원리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101-115쪽.

를 지나면서 옛 것을 지켜내는 대단한 집착성을 엮어 이해하면 제주의 문화원리가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 평화의 섬 이미지

이 땅에 들어온 문화를 잘 간직하는 제주. 제주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쉽게 버리지 않는 문화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켜 받아들이는 제주는 한국사회가 궁리해야 할 문화적 대안이라 확신한다.

자기 것이 있어야 남의 것이 있다. 자기 것이 없으면 남의 것에 종속된다. 자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남의 것을 취사선택하여 좀더 강하고 아름다운 자기 것을 만들 수 있다. 제주에는 자기 것을 강고하게 지켜왔다. 큰 자랑거리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을 받아들이면서 남의 것에 경도되거나 흡수되지 않을 수 있다. 제주는 남의 것을 받아들이는 데 인색하다는 말도 한다. 그러나 마구잡이로 받아들여 외래적인 것에 휩쓸리지 않는 점이 오히려 강점이라고 해야 한다. 자기 것과 남의 것이 경계선을 이루어 길항작용을 하지만 그 둘을 천천히 통합해 나가는 데에 제주문화의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상쟁과 상생의 조화를 제주에서 본다.

하지만 이것은 근대를 만나기까지 제주의 모습이었지 지금은 다르다. 제주는 외래적인 것들에 몹시 흔들리고 있다. 근대 산업사회의 거센 물결 앞에서 서서히 자기 것을 포기해 가고 있다. 송두리째 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몰두한다. 제주도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니 특별자치도시니 하면서 제주를 관광과 도박과 쇼핑의 국제도시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주의 모든 전통적인 가치를

포기하고 있다.

개발과 개발 앞에 어느 자치단체인들 자유롭겠는가만은, 지금 제주의 개발 유혹은 대단하다. 현재 15개 정도의 골프장이 있는데, 인가된 것이 개발되면 앞으로 45개의 골프장이 조성된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10만 평 정도의 해안이 매립되었고, 제주의 숨골이라 할 곳자왈에 100만 평 규모의 리조트 단지가 몇 개 들어설 계획이다. 화순항에는 해군기지를 만들어 미국 주도의 MD 체제를 구축하려는 군사적 움직임도 있다.

제주는 지난 1948년 4·3으로 찢긴 상처를 치유하고 지난 해(2005)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다. 제주는 지형적으로도 동아시아 지중해의 중심에 놓여 있다. 반경 600km 내에 상해와 평양과 큐슈와 오키나와가 포함된다. 군국주의를 지향하는 일본과 패권주의를 지향하는 중국의 균형자 노릇을 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제주라는 지정학적 중심을 잘 활용해야 한다. 제주가 평화의 섬 이미지를 잘 활용하면서, 과거 문화를 잘 지키는 전통을 계승하여, 상생과 평화의 문화를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6. 지방학으로서의 제주학

모든 지역문화는 근대사 60년 동안 국가 획일주의의 횡포 앞에서 거의 파괴되거나 상처 입고, 그 언어조차 실종의 위기에 처해 있다. 더구나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영어공용어화’를 주장하는 현실이니, 제주어를 지킨다거나 부활시킨다는 꿈은 실현불가능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계화하기 위해 자기 것을 버리는 것은 허구다. 이제 지역민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문화 연구하여 한국문화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할 시기가 왔다고 한다. 그래서 지역주의에 의한 문화자

치와 문화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의 자립화, 자치화, 특성화, 재창조, 민주화, 독립화, 연대화 정책’을 기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²³⁾ 제주는 제주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제주어로 소설과 시를 쓰고, 제주어로 방송을 해야 하고, 타자의 용어인 제주를 버리고 ‘탐라’를 회복해야 한다. 이런 의식이 선행돼야 진정한 제주문화연구와 제주학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V. 결

21세기는 물질의 풍요가 정신의 파탄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의 종언이나 문명의 재기 불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불행을 넘어어서서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려는 이상이나 소망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 때이다. 이치를 따지고 가치를 존중하는 학문인 인문학의 전통을 되살려야 한다. 인문학의 발상과 창조력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평가되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근대의 잘못을 시정하고 탈 근대의 길을 찾게 하는 것이 인문학이다. 인문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구적 근대를 반성하고 민족적 역량을 간직한 전통에서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본-테크놀로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 위에서 현재의 인간을 구속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인문학의 흔들릴 수 없는 성립 요건이다.²⁴⁾ 여기에 미래에 대한 낙관도 보태져야 한다.

한국의 인문학 즉 한국학은 지역학이 살아야 가능하다. 우리는 지역학을 연구함으로써 국가주의에 매몰되어 주변으로 밀려나 소외되고 배

23) 임재해, 『지역문화 그 진단과 처방』, 지식산업사, 2002, 119쪽.

24) 강명관, 『국문학과 민족 그리고 근대』, 소명출판, 2007, 205쪽.

제되었던 과거를 치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지역학을 연구하는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여 지역 정체성을 찾아 지역 문화와 산업을 진흥하고, 나아가 한국학이 풍성하고 다양해지는 길을 제시함으로써 인문한국학의 부활이 근대 문명의 과탄을 극복할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제주학은 페리퍼리(주변부)로서 중심 부를 탄실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제주학에는 한국학이 잃은 과거의 꿈과 숨결이 녹아 있다. 우리는 그것을 21세기 한국 인문학의 도정에 꺼내놓고자 한다.

우리는 서구적 학문들에 매여 있었다. 이제 우리 전통의 학문들을 마련해야 창조학으로 나갈 수 있다. 우리 문화유산을 돌보는 국학이 바로 자립학이다. 서울 중심의 중앙학뿐만 아니라 지방학을 연구의 조건으로 삼아야 한국학의 실체가 확연해지고 한국학의 일반이론을 창조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 지방학을 중시하고 지원하는 집중적 노력이 필요하다. 민족문화는 지방문화에서 그 단서를 찾아야 한다. 제주는 그 동안 감추어져 있었다. 제주문화는 민족문화를 통섭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을 확신한다.

참고문헌

『탐라문화』 11호(1991), 『탐라문화』 12호(1992), 『탐라문화』 13호(1993), 『탐라문화』 14호(1994), 『탐라문화』 15호(1995), 『탐라문화』 16호(1996), 『탐라문화』 17호(1997), 『탐라문화』 18호(1998), 『탐라문화』 19호(1999), 『탐라문화』 20호(2000), 『탐라문화』 21호(2001), 『탐라문화』 22호(2002), 『탐라문화』 23호(2003), 『탐라문화』 24호(2004), 『탐라문화』 25호(2004), 『탐라문화』 26호(2005), 『탐라문화』 27호(2005), 『탐라문화』 28호(2006), 『탐라문화』 29호(2006), 『탐라문화』 30호(2007)

강명관, 『국문학과 민족 그리고 근대』, 소명출판, 2007.

김동윤, 『4·3의 진실과 문학』, 도서출판 각, 2003.

김동윤, 「4·3문학의 전개양상과 그 의미」, 『기억 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2004.

김동전, 「제주 지방사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 지방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 2000,

변성구, 『제주민요의 현장론적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7.

성기옥, 『국문학과 민족미학』, 『국문학과 문화』, 월인, 2001.

양영자, 『제주민요의 배경론적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7.

유철인, 「지역연구와 제주학: 제주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도연구』 13집, 제주학회, 1996.

이성훈, 『해녀의 삶과 그 노래』민속원, 2005.

이성훈, 「해녀 노젓는 소리」, 숭실대 박사학위논문, 2007.

이청규, 『제주도 고고학연구』, 학연문화사, 1995.

임재혜, 『지역문화 그 진단과 처방』, 지식산업사, 2002.

전경수, 「상고 탐라사회의 기본구조와 운동방향」, 『제주도연구』 4, 제주도연구회, 1987.

전경수, 「지역연구로서의 제주학의 방법과 전망」, 『제주도연구』 15집, 제주학회, 1998.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9.

조동일, 「탐라국 건국서사시를 찾아서」, 『제주도연구』 19집, 제주학회, 2001.

조동일, 『세계·지방화 시대의 한국학』 1, 계명대학교출판부, 2005.

진영일, 「고대탐라의 교역과 ‘國’ 형성고」, 『제주도사연구』 3, 제주도사연구회, 1994.

- 진영일, 「고려기 참라의 星主와 三神人 탐색」, 『탐라문화』 26, 탐라문화연구소, 2005.
- 한진오, 「제주도 입춘굿의 연행원리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허남춘·주영하·오영주 공저, 『제주의 음식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07.
- 현길언, 「제주학 연구 방법론」, 『제주도연구』 14집, 제주학회, 1997.

Abstract

A present Product and Assignment of cultural Research in Jeju

Heo, Nam-choon*

Jeju has its own distinctive culture in the context of Korean history. In fact, the study of the local culture, the Jeju culture, has not listed on the high priority under the circumstance of centralized system of science promotion. Also Jeju culture has been regarded as an peripheral one when we evaluate about the capacity of Korean culture. But it is not possible to discuss the strength of national culture without emphasizing the foundation of local culture. The inherited culture of a country can be prospered not only when people appreciate the roots of local culture but also the local culture is able to come across with neighboring Asian culture. Now it's time to focus on the local culture. It is the time to build up 'Jeju Study' based on the unique nature of the local heritages such as folklore and myth of Jeju.

It can be classified as several research themes based on the publications of previous seminars and academic meetings. The first theme is the research about history and culture of ancient times, Tamla(耽羅) era. The second is the era of Mongolian invasion during Koryeo Dynasty(高麗). The third theme is the literature of exile and exploitation of ordinary people by Chosun Dynasty(朝鮮) and their

* Chief of Tamla Culture Research Institu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heju National University

lives. The fourth theme is to find out the facts and aftermath of 4·3 incident and its reflection in the contemporary literature. The sixth theme is the suffering of Jeju people and following literatures during colonial period by Japan. The seventh theme is the folklore of woman diver and folk song and traditional foods. The eighth theme is the creation of cultural contents based on the prototype of Jeju culture.

The direction of research themes that Jeju must concern is as follows:

- 1) Succeeding the unique nature of local culture and spirit
- 2) Thriving the beauty and the taste of Jeju
- 3) Balancing between the material and mental heritages
- 4) Discovering the cultural identity of Jeju
- 5) Promoting the image of peace island
- 6) Establishing the 'Jeju Study' as a regional science

Key Words

local culture, periphery, folklore, Tamla(耽羅), exile, presentation, 4·3 incident, woman diver, cultural contents, prototype, cultural identity, peace island, Jeju Study(濟州學)

교신 : 허남춘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66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E-mail: hnc423@cheju.ac.kr 전화: 064-754-2718)

최초 투고일 : 2007. 6. 30

최종 접수일 : 2007. 7. 26